

### Ⅲ. 잡지 『새암』

#### 1. 잡지 『새암』 소개

잡지 『새암』은 1966년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논산 천주교 학생회 학예부에서 발행한 것이다. 그 당시 논산에서는 가톨릭 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300명 정도였는데, 이중 100여명이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학생수 중에서 절반 정도가 학생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 연무본당에서도 연합학생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은 매년 1번씩 있는 충남 가톨릭 학생회 연합회 피정에 참여하거나 병인박해 순교 백주년 행사등을 주관하는 등 활발하게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유복남(이나시오)의 증언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당시 학생회장을 역임했는데,

—  
잡지  
『새암』 앞표지



그때 학생회에서 『새암』 발행을 주도했다고 한다. 당시 대건고등학교 국어 교사였던 김영배가 잡지발행을 지도하였다. 잡지는 창간호만 발간되었고, 그 이후에는 발간되지 못했다.

잡지 『새암』의 원본은 당시 몇 권 제작되어 가톨릭 학생회에 활동하던 교사 및 학생들에게 배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이 글은 현재 내포교회사연구소에 소장 중인 것을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잡지는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속지를 제본했으며, 그 후 겉표지를 감싸 접착하였다. 앞표지의 경우 등사기를 통해 찍은 것이며, ‘새암’이라는 책의 제목과 샘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 발행처인 ‘논산 천주교 학생회’가 인쇄되어있다. 하단 일부의 경우 약간 잘려져 있는데, 이는 인쇄 과정에서 잘린 것으로 보인다. 잡지를 펼치면 표제지가 나오는데, “1966년 성모몽소승천 기념일 새암 창간호”라고 쓰여 있다. 그 밑에는 샘과 물방울로 추정되는 그림과 “논산 천주교 학생회”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 사이에 기증 도장이 찍혀 있다. 그 다음 장에는 목차가 있는데, 현재 파손된 상태이다. 한편 일부 페이지의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이는 당시 인쇄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잡지 『새암』의 내용 다음과 같다. 우선 당시 본당 주임이었던 손만재(요한) 신부의 권두언을 시작으로 당시 보좌이자 학생회 지도신부인 윤여홍(바오로) 신부, 본당회장 박현철(아우구스티노), 학생회 부회장 김 놀벨도, 학생회 회원인 유영식, 유복남의 논단이 있다. 여백에는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성 테레사, 장자, 제임스 모어의 격언이나 문구가 쓰여있다. 그 후 시단 14편, 산문 3편, 앙케이트(5가지 질문에 주요 인물들이 답변한 내용), 콩트 1편, 서간문 2편, 수필 3편, 소품 2편, 편집후기(표제에 붙여서), 논산 가톨릭(천주교) 학생회가 순으로 수록되었다.(세부적인 것은 2. 잡지 『새암』의 내용에서 다룬다.) 그리고 끝페이지에 있는 판권지를 통해 책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1966년 8월 15일에 발행”했다는 것, 논산 천주교 학생회 학예부에서 발행, 편집, 인쇄를 맡았다는 것, 비매품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이다.

잡지 『새암』은 당시 활발했던 논산의 천주교 학생회 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증거이며, 책의 내용을 통해 당시 학생들의 문화적인 소양과 신앙심, 정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회일치를 위한 공의회 정신을 실천하는 손만재 신부와 윤여홍 신부, 그리고 논산 교우들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 2. 잡지 『새암』의 내용

### 목차

권두언 본당신부 손 요안

### 논단

신자 학생들에게:지도신부 윤 바오로

학생회지 발간에 즈음하여:본당회장 박헌철 아오스딩

흡애로의 노력:학생부회장 김 늘벨도

학생회의 향상을 위하여:유영식

학생의 신앙생활은 어떻게하면 더 잘 할 수 있는가?:유복남

### 시단

성모성월:정 마리아/5월:김 소피아/불꽃:김예희/

비 개인 뒤:조 테레사/사랑:박 골롬마/호수:유복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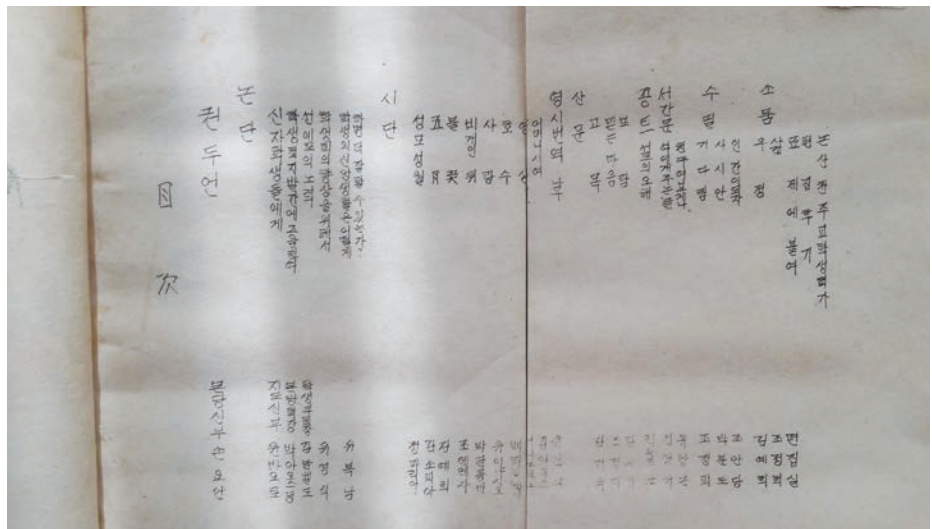
영상:백 막달레나/자아:김 쩌마/우리 같이 불러보자:유 발라바/

낙서:조 테레사/순:백옥현/7월의 캠퍼스:서 디모테오/

어머니시여!:김 아네스/나무(영문시(Tree) 번역):유복남/

### 산문

고목:김건숙/믿는 마음:조정희/씩:김예희/



**양케이트**\* 5가지 질문에 주요 인물들이 답변한 내용<sup>311</sup>

박현철(본당회장)/오경호(대건중·고 교장)/김석배(전교부장)

최을수(총무부장)/권재식(재정위원)/윤수영(재정위원)

나윤천(썬뿔 교감, 교리교사)/백남중<sup>312</sup>/박분도(복사 경리반 서무반)

강창식(성가대 지휘자)

**포인트**:서로의 오해(전영규)

**서간문**

石에게 주는 글:유창근 발라바/친구여 보게나:전영규

**수필**

기다림:조정희/사시안: 황설수설(본당 복사)/인간이 되자!:조 안당

**소품**

우정:김 쯤마/삶:조정희(테레사)

**표제에 붙여서**

새암:편집인/편집후기

**논산 카톨릭 학생회가**<sup>313</sup>

작사 권길중, 작곡 강창식

**논산 카톨릭 학생회가**

작사:권길중/작곡:강창식

은은한 삼중소리 주의 은총 알리고

놀피의 넓은 들 새일꾼- 부른다

새남터 희생으로 뿌려진 복음을

주님의 사도-자로 땅끝까지 전하리

아-성모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논산 천주교회 학생회

# 논산 가톨릭 학생회가

작사: 권길중

작곡: 강창식

Maestoso

은은한 삼종소리 주의 은총 알리고  
불의의 뱀은 들 세 일곱 부른다  
새 날려 희생으로 큰 백의진 부름들  
주님의 사도자 큰 땅을 까지 천하의  
mp  
아 - 성 모 떠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논산 진주교회 학생회

## IV. 본당 주보

본당주보는 지역 교우들에게 주간 미사전례, 공지사항, 본당 소식, 행사 안내 등을 수록한 소식지 성격의 문서이다. 어떤 경우에는 순례기, 수록(手錄)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보의 면수는 적게는 1면, 많게는 8면까지 나타난다.

논산 부창동본당의 주보는 8~90년대부터 발간되어 교우들에게 배포되었는데, 총 3단계로 구분된다. 처음 1984년 3월 첫 발행했던 「루르드」, 1987년 4월 5일 첫 발행했던 「부창동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 그리고 1996년 3월 3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놀메두레(놀피두레)」가 바로 그것이다.

본당의 첫 주보인 「루르드」는 부창동 천주교회 청년회 루르드 편집실에서 편집, 명문인쇄사에서 인쇄하여 매월마다 발행되었다. 1984년 3월에 창간호가 발행된 후 1987년 3월 29일까지 총 33호의 「루르드」 주보가 발행되었다. 주보에는 사설, 본당 소식, 모임교재 등 내용이 수록되었다. 「루르드」는 1987년 3월 33호를 끝으로 「부창동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본당에서는 1호부터 33호까지를 책으로 엮어 보관하고 있으며, 제6호 등 일부 주보는 원본이 유실되어 복사본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 다음 주보인 「부창동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는 1987년 4월 5일 창간호가 발행된 후 1966년 3월 3일까지 총 466호가 발행되었다. 주보는 대개 1~2페이지로 이전에 비해 페이지 수가 매우 축소되었다. 내용은 본당행사와 미사안내, 전례봉사자 및 미사성가 등 내용이 수록되었고, 전주일의 현금과 교무금이 소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주보는 1996년 3월 3일, 466호를 끝으로 「놀메두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현재 본당에서는 1호부터 466호까지 책으로 엮어 보관하고 있는데, 제본 과정에서 일부 페이지의 글자가 절단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행되는 「놀메두레」는 1996년 3월 3일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주보는 4페이지로 시작되었다가 1999년 이후부터 2페이지로 축소되었다. 내용은 미사전례와 공지사항 등 내용이 수록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교우들의 가게에 대한 광고를 수록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명칭이 「놀피두레」로 바뀌었다. 본당에서는 연도별로 주보를 책으로 엮었으며, 2017년 8월 27일 제1152호부터는 논산 부창동 성당 카페(<https://cafe.daum.net/boochang/>)의 ‘본당 주보’란에 게재하고 있다.

—  
「루르드」  
창간호

< / >

<h1>루 르 드</h1>	聖 句 "내가 올렘이나 예언서 의 말씀을 없애러 온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 성하러 왔다" (마태5,17)
창 간 호 1984.3월	
발행 : 부창동 전주교회 청년회 인쇄 명문 인쇄사	


「부창동  
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 창간호

1987년 4월 5일 (제 1 호)

주임신부 박상래 (야 고 보)  
과신부 김재철 (요한보스꼬)  
회 장 김석배 (시 릴 로)

# 부창동천주교회

(주보:루르드의 성모)  
주소:논산군 논산읍 부창동 1번지

사무실 ☎ 2303  
주임신부 ☎ 2301  
과신부 ☎ 2302  
수녀원 ☎ 2304

본당 주보 발간에 즈음하여 -  
우리 부창동 본당도 이제는 마침내 본당  
주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매주 「대전주보」  
의 마지막쪽을 이용하여 발행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은 본당 월보 「루르드」지가 구역회  
자료와 함께 매월 본당 소식을 묶어서 전  
주었다. 이 월보 발행에 3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편집 봉사를 맡아서 애써 주신  
구역회와 편집실무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자  
「루르드」지는 청년회지로서의 본연의 모  
습을 되찾아 앞으로도 계속 발행될 것이다  
구역회의 자료집은 별도의 책자로 매월 한  
권씩 제공될 것이다

본당 교우들은 주의깊게 읽어주시고 아들  
본당주보의 소식을 본당의 제반행사와  
구역회에 참여하는데 이 주보를 적극 활용 하  
시기 바라마지 않는다

주임신부 박 상 래

- \* 성소후원회. 성모회  
때: 4월 5일. 오전 10시 30분 미사후  
곳: 성 당
- \* 영세식  
때: 4월 5일. 오후 3시 (영세식 및 미사)  
곳: 성 당  
준비: 오후 2시 30분 까지, (영세자  
대부 대모 강당에 모여 예결 연  
습 및 영세준비  
환영식. 영세식 및 미사후 강당  
(구, 성당)에서 파티

### \* 본당 판공 석사

일 자	구 역	판 공 시 간
4월9일(목)	부 창 동	오전10시-12시
4월10일(금)	취 암 동	오후3시 - 6시
4월11일(토)	강산 대동. 지산 은진 직장인 학생 기타	미사전후

- \* 사목 위원회  
때: 4월 10일 (금 오후 7시 신자가의길  
기도후  
곳: 사 계 관
- \* 금주의 성당 미화  
때: 4월 6일 (월. 오전 10시부터  
구역: 부창 12, 13구역  
책임: 김동희 구역장
- \* 성서 강좌  
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곳: 성당 강사: 주임신부  
내용: 사도 바울로의 생애와 사상

사 내	평일	아침 : 오전 6시 30분 (월, 수, 목, 금, 토) 저녁 : 오후 7시 (화, 목, 토) 낮 : 수요일 오전 10시	전 주일의 헌금 520 320 원 전 주일의 교무금 303 000 원
	특전미사 주일	토요일 저녁 7시 오전 6시 30분 오전 9시 10분 (아동미사)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학생미사) 오후 7시	
고백성사	매일 미사전 20분간		교 리 안 내 다 5월 첫주부터 예비자 교리반을 개강 합니다 교리반에 예비자를 많이 안내할수 있도록 신자분들의 환동을 바랍니 다

# 놀메두레

주임신부 : 윤 종 관(가브리엘)  
보좌신부 : 김 명 현(미 카 엘)  
사목회장 : 이 연 식(요 한)

## 루르드의 성모 성당

320-800 논산시 부창동1번지 사무실: 32-2303 FAX: 33-2705 연

주임신부: 32-2301 보좌신부: 32-2302 수녀원: 32-2304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 우기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느님이 초대하시는 길은 우리 자신의 안정과 현재적 안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아 포기과 십자가의 길이다. 미지의 땅을 향해 하느님의 손길만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자세와 자신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인 우리의 신앙 자세를 되돌아보게 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산다.

예수님은 수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타불산으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신다. 그리고는 당신의 감추어진 신적(神의)면모를 드러내 보이신다. "얼굴을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시게 빛났다." 예수님은 수난을 앞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당신의 정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신 성부의 증언으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확신시키신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할 핵심은 더 깊은 데에 있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제1독서) 이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룩할 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안정과 평화로운 생존을 보장하는 동족과 그동안의 삶을 모두 버리고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난다.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온전한 신뢰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타불산에서 예수님의 황홀한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얼떨결에 말한다.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기쁨과 희열의 순간에 안주하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셔야 한다. 수난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부활과 승천에 가는 길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채우기 위한 희생과 자기비움의 결단을 외면한 채, 영적인 위안과 희열만을 찾는다면 진정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새로나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그의 말을 듣는 삶이다.

#### [미사시간 및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토 요 일	주 일	평 일	미사 성가	예비자반 모집
오전 6:00	오전 6:00	월,금,토 오전 6:00	입당: 121	일시: 3월3일(일) 오전10시 장소: 교육관
오후 3:00 어린이 미사	오전 9:00(학생미사) 오전10:30(교중미사)	수 목 오전10:00	봉헌: 342, 116	
오후 7:00 특전미사	오후 7:00(청년미사)	화,수,목,금 오후 7:00	성체: 344, 178, 156 파견: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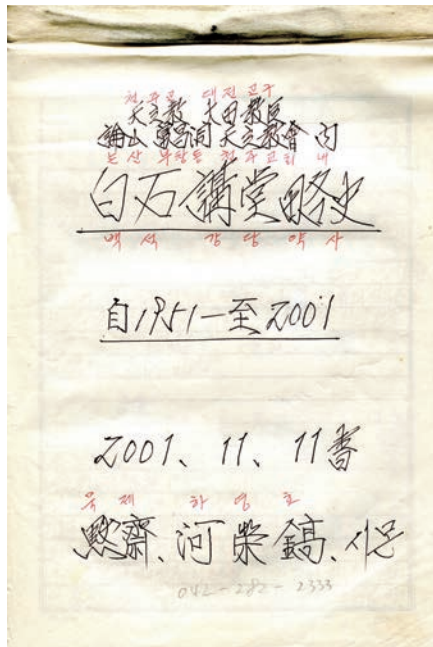
#### [전례봉사자]

미 사	금 주( 3월 3일)			차 주(3월 10일)		
	주송자	제1독서	제2독서	주송자	제1독서	제2독서
새벽미사	김규차	-	-	김규차	-	-
교중미사	박용서	주영기	하태숙	김원경	조영구	박미자
저녁미사	김상원	-	-	이광우	-	-

## V. 기타 논산본당 관련 발행물

### 1. 하영호 시몬의 「백석 강당 약사」(1951~2001)<sup>314</sup>

—  
「백석 강당  
약사」  
(1951~2001)  
앞표지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 부창동 천주교회 내

**백석 강당 약사**

자自 1951 - 지至 2001

2001. 11. 11. 서<sup>315</sup>

목제 하영호 시몬

## 백석 강당 발족과 연혁<sup>316</sup>

### 서문[序文]

나는 지금 논산시 부창동에 위치한 부창동 성당 사무장님의 부탁으로 백석 강당 발족과 연혁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연유를 상세히 회고하여 명확한 사실을 기술하려다 보니 우선 비재 박식한 그리고 대수롭지도 않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성장과정 등을 먼저 소개하지 않고서는 신앙인 즉, 천주교 신자의 시초가 누구부터이었던지 밝힐 수가 없어서 외람됨을 무릅쓰고 대충 기록하는 것을 넓으신 아량으로 크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 1. 나의 출생

나는 일제말기에 지금은 북한 땅 평안북도 개천군 개천읍 군우리 일명 군모루에서 출생하였다.<sup>317</sup>

나이 열 살도 채 안된 나는 1945년 1월 20일경 부모님의 이주계획에 의하여 충남 논산군 부적면 덕평리 용구미 부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런데 미신의 속성이 본래 그렇듯이 믿어도 끝을 알지 못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만족함이 없는 점술과 독경 그리고 동토막이 등의 미신숭배 등에 지쳐버리신 나의 어머님께서 1947년경에 어린 나의 손목을 잡으시고 찾아가신 곳이 당시 논산읍 부창동에 위치한 천주교회였었다.

막상 입교를 하고 보니 그곳 역시 쉬운 곳만은 아니었다. 천주교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서를 완전히 암송하고 기도문을 낭송해 아침저녁으로 조과와 만과를 드려야 했다.

사세가 이같이 되고 보니 나는 천주교 요리문답 320조목을 달달 외어야 하였고 찰고를 세 번도 더 하고서야 영세를 받을 수가 있었다.

그 이유인즉 나의 어머님과 할머니의 암기능력 부진으로 찰고 성적이 낙후된 책임을 아들인 나와 손자인 나에게 지우시는 뜻에서 찰고를 받으시고도 또 받으시고 하셨던 모양이다. 그러는 동안 나의 어머님과 할머니의 찰고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시기 위한 의미도 물론 있으셨던 것은 혹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럭저럭 두어 해가 바람같이 흘러가도 예비자라는 딱지를 떼지 못한 상태에서 조 신부(준함과 세례명을 기억할 수 없음)님께서 교구의 발령에 의해 새로운 임지로 떠

나시고 프랑스 출신이신 성재덕 빼에르쎅제 신부님께서 후임으로 부임되시었다. 신부님께서 뜻밖에 바뀌시니까 그동안의 전례는 다소 퇴색하여 과거에 조 신부님께 참고하셨던 문답은 모두 허사가 되어 또다시 참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세가 이에 이르고 보니 어린 소년이라 야속한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 와중에서 1950년 6월 25일 국치의 사변이 발발하여 구사일생으로 겨우 목숨은 보존하였으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 3년 이상의 길고 먼 전쟁에서 생명을 구제받을 수가 있고 없음은 풍전등화 같아 기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피난을 목적으로 이주를 해간 곳이 같은 군내에 연산면 사포리 살포재라는 마을이었다.

반세를 보낸 오늘날까지도 심산궁곡[深山窮谷]을 조금도 면치 못하고 별로 개화된 양상을 엿볼 수가 없으니 당시 모습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오지 중의 오지이며 미개 그 자체였다.

십자가상을 벽에 걸어 모셨더니 마을의 또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보고는 호주비행기라고들 하며 내려가지고 공중으로 던지기도 하고 왕왕 부르릉부릉 하면서 엽기적인 놀이를 하는 등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짓을 하는 바람에 가끔씩 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불을 개 얹은 장롱 뒤에다 은밀히 감추어 두고 기도를 하기도 하였으니 말이다. 이때 나의 신심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한 분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가 비록 전쟁 중이기는 하였으나 동년 9.28수복까지 만 3개월 3일이 지난 뒤부터는 전선의 씨이소 형태와 빨치산의 불시출몰로 항상 불안과 초조를 떨칠 수는 없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국가와 사회가 조금씩은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교회 또한 조심스럽게 집회를 시도하고 미사를 드리기도 할 때였다. 같은 군 부적면 마구평리 돌뫓부락의 공소에 동정녀이신 구두라<sup>318</sup> 씨께서 거리는 10km도 더 되고 우선 면계가 다른 우리 집을 묻고 물어서 찾아오셨는데 목적인즉 요즘 말하는 예비자 방문이셨다.

현재와 같이 교통이 원활한 때라면 몰라도 험준한 산 움푹짐푹한 내 편협한 오솔길을 오르고 건너고 때로는 맨발을 벗어가며 가지각색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나처럼 영세자도 아닌 예비자 그리고 어른도 아닌 어린소년을 찾아주신 그 크신 고마움을 무엇으로 갚아야만 보상이 가능하단 하겠는가?

동정녀 구두라 씨에 출천지신심은 유한한 인간의 두뇌로써는 계량이 불가능한 도무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마치 날개 없는 천사로 지칭해야만 거의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은 훌륭한 성자이셨다. 한번 노정[路程]을 알아두신 구두라 씨께서는 비교적 자주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나와 나의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교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요령을 지도해 주시는 바람에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1952년에 나와 어머님과 할머님은 함께 영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님과 할머님께서도 기도문인 주모경을 마저 암송하지 못하시는 형편이셨지만 손자인 내가 교리문답을 앵무새처럼 어찌나 찰고를 잘도 하는지 “그 정성을 감안하여 다 같이 영세를 드리니 그리 아시고 열심히 믿으십시오.” 라고 하시는 신부님의 말씀이시었다. 그리고 또 재차 말씀하시기를 “아들 시몬과 아주머님의 그토록 줄기찬 신앙심으로 미루어볼 때 그 가정은 물론이고 앞으로 반드시 그 지역에 신앙의 꽃이 활짝 필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도 하셨다.

## 2. 공소 창립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나는 전교하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다정히 노닐던 친구 성지용 군에게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변자비를 열심히 설명하고 믿기를 권유하여 논산 부창동 성당으로 인도하였더니 그 친구는 이름조차 들어보지를 못하였던 곳을 가지는 말에 귀가 솔깃하여 쾌히 승낙하고 쉽게 따라나섰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한 그리고 원활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솔길 삼사십리를 10대 초반의 소년의 역량으로서는 도보 왕복이 결코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도 굶기를 먹듯이 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파리할 대로 파리해졌으며 야월 대로 야위어버린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였다.

그러나 친구 지용은 사정이 달랐다. 심산벽촌에서 보이는 것은 풀과 나무이며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 새 소리 뿐이었는데 꿈에도 보지 못했던 넓고도 변화한 논산 읍내와 시장 그리고 웅장하면서도 경건하기까지 한 성당을 다니면서 보는 재미에 피로도 잊었는지 항상 날더러 성당에 갈 때마다 자기를 꼭 데리고 가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요청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반가웠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전을 찾아가는데 친구가 있건 없건 그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을까마는 홀로 왕복 칠팔십 리를 도보로 출행하기 보다는 벗이 있어 오손도손 대화를 하면서 다니는 것이 우선 좋아서였다. 그 가운데서도 부족한 부황리 모퉁이에 서부터 논산역 근처까지 약 십여 리 구간을 철로 레일 위로 한 쪽씩 올라서 걷고 뛰다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는 등 깔깔 웃으며 즐기는 동안 피곤이 한결 가시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더니 그 같은 즐거움도 길지 않게 되었다. 이유인즉 그 친구의 부친 성주문(사포리 공소 초대 회장님)씨께서 아들이 성당에 나가는 것을 중지시켰기 때문이었다. 장유유서가 분명한 그리고 어른의 위엄이 그렇게도 대단하였던 때에 부친의 반대의사는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토록 엄격하신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이 가까워 오면 언제나 몰래 나를 찾아와서 자기도 같이 데리고 가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였다. 나는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긴 하였으나 싫은 생각이 있지는 않았기에 남들의 눈을 피하여 조심스럽게 데리고 다녔다. 말리고 으박질러도 도무지 듣지 않는 아들의 고집을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셨지만 추호의 성과를 못 보신 성주문 씨께서는 분기가 중천하시어 어찌할 줄을 모르시었다. 왜냐하면 효와 불효를 따지기에 앞서 더 큰 위협을 느끼시는 것은 사업에 지장을 받으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평소에 마을은 물론 인근 부락까지도 미신의 일종인 동토잡이<sup>319</sup>, 물렁개질, 비손 등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고 사례금을 받아 생활에 많은 보탬을 해오시던 분이시었는데 결국 아들의 고집이 아버님 사업에 적잖은 손해를 끼치는 셈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교리를 잘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오직 신심에만 불이 붙은 아들을 꺾지 못하신 성주문 씨께서는 하루는 나를 찾아오시어 하시는 말씀이 “영호(영호는 나의 이름이다)야, 네가 지용이를 데리고 다니는 곳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야? 그 놈이 그곳에서 무슨 재미를 얼마나 많이 보고 느꼈기에 욕을 먹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도무지 듣지 아니하고 항상 이 아버를 속이면서 눈을 피하여 도망을 쳐 다녀오곤 하는 건지 참으로 야속한 노릇이구나!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네가 나를 좀 데리고 가거라. 어차피 막아서 될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한번 내려가서 사실을 확인하여 믿을만한 종교임이 인정된다면 이제 아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는 않을 생각이 다.” 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어르신의 지치고 힘이 빠진 모습은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었지만 성당엘 가지겠다는 말씀은 반가움일 수밖에 없었고 한편 대단한 수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선뜻 쾌한 대답을 드리면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의 마음이 결정되셨으면 오는 일요일 새벽 세시에 저의 집으로 오시지요! 그러면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드렸다.

어른과의 약속을 마친 한 주일은 순식간에 흘러서 어느덧 그날은 먼전으로 다가왔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성지용 친구 대신 그의 아버님과 동행하여 성당엘 갔다. 미사참례를 다 마친 나는 어르신을 모시고 사제관으로 찾아가서 신부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어르신을 소개 말씀 올렸다. 어르신은 연세로야 어른이심이 틀림없었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심산궁곡 연산면 사포리에서 출생하시고 성장하시어 오늘에 이르는 동안 농사지으시는 일과 산에 올라 땔나무를 해오는 일을 빼고는 사회적인 활동을 별로 못해보신 분이어서 마치 촌닭이 관청에 잡혀온 듯 어리둥절해 하시는 모습이셨다.

신부님께서 성함을 물으시자 어르신께서는 “예, 성주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니까 신부님께서 갑자기 안색과 표정을 바꾸시면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이었다. 신부님께서 한국에 나오신 뒤로 처음 만난 일가라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신기롭고 이상스러운 노릇이었다.

어르신께서는 어린 나를 따라 성당에까지 오신 근본 목적은 아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성당엘 나가지 못하게 해보셨으나 기어이 뜻을 이루지 못하시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꾸시어 합리적인 반대를 하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의외에도 신부님으로부터 일가를 만났다고 기뻐하시는 그 열정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의 태도는 180도로 전환되신 모습이셨다.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기도문이건 교리문답이건 내가 도와드려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무를 하시기 위해 산엘 오르시거나 들에 농역을 하시기 위해 나가셔도 기실 하셔야 하는 목적은 뒷전이시고 기도문과 교리문답 책을 암송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 기울이시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이었던가? 워낙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던 관계로 나처럼 몇 년 동안을 예비자의 신분으로 남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신 것이다 불과 일이 년에 먼저 믿기 시작한 아들 성지용보다 오히려 먼저 영세를 받으시었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영세를 받았으며 또 그다음엔 작은아들 형제와 부인께서 함께 영세를 받으셨는데 내가 차남과 삼남 형제의 대부를 서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그 한 가정이 섞이지 않은 최초의 교우 가정을 이루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성을 따르시고 이름까지도 똑같이 부르는 이유와 어디에 근거한 창씨개명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당시 성지용 친구의 가정이 완전한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재덕 신부님의 성씨가 성자를 쓰고 있으시다는 점과 뜻밖에 외국인으로부터 일가라는 호칭과 아울러 내국인에게 못 느꼈던 다정다감하신 친절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나오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제의를 해오셨다.

다름 아닌 공소집<sup>320</sup> 신설 문제였다. 신부님께서 우리 집과 성주문 도마 씨 댁, 딱 두 집을 보시고 우리 집에다 공소를 신설하시겠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참으로 겁이 났다. 지금까지는 연산면 임리의 거북리 마을 공소(유기점촌)엘 나가다가 연산면 연산리공소(연산시장)로 나갔었는데 사포리공소를 새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었다. 한국인 신부님이시라 해도 당시 우리의 생활형편으로서는 감히 모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물며 국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선진국민테다가 상대가 신부님이신데 어찌 일반 서민 대중과 동등한 대접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하여 나는 일언지하에 신부님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신부님, 저희 집은 얼마나 초라한지 도시의 호화로운 주택은 고사하고 시골농가에서도 부농의 뒷간(화장실)보다 못하여 미사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일일뿐 아니라 식사를 신부님의 식성(기호)에 맞게 할 만한 솜씨(조리기술)를 가진 여인이 우선 없고 가장 어려운 것은 신부님께서 주무실 침소가 만만치 않다는 것보다 전혀 그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신부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너는 아무것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너희 가족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방중에 한 칸만 주고 덮지 않는 이불로 한 채를 주면 되며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이다. 다만 뒷간(화장실)만 공동사용을 하지 않는 독실을 써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긴 나무를 네 귀에 세우고 가마니 네 장만 뜯어서 각 면마다 달아매는데 한 장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어두면 되는 것이며 내가 판공을 마치고 떠나거든 다시 철거를 하면 그만인데 철거를 하기도 매우 쉬우니까 하나도 걱정을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는 바람에 나는 용기를 얻어 협소하고 초라한 우리 집에다 사포리

공소를 새로 개설하게 되었다.

### 3. 전교

내가 살고 있는 연산면 사포리는 상월면의 일부와 노성면의 일부가 서로 인접한 곳으로 궁핍하기 이를 데가 없을 뿐 아니라 각 면의 사무소와 지서, 그리고 우체국, 학교 등 공동생활의 최소한의 단위기관도 멀리 있어서 자주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곳에 두세 대를 합해도 열 명이 안 되는 교우 수를 가지고 우리 집에다 처음으로 공소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어설프고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고 교우 중 어른이라고는 성주문(도마) 씨밖에 없었으니 명색이 공소인지라 관리자인 회장을 선임한다면 당연히 그분께서 하실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성주문(도마) 씨는 연산 천주교회 사포리공소의 초대 회장으로 취임되시었다. 교리에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으나 기도와 신심은 회장의 자질을 습득함에 부족함이 없으시었고 따라서 전교를 하시는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시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만해도 경제적인 면에서만 낙후되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 그 어느 분야에서도 선진이라고 자부할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기에 특히 시골에서는 어느 마을을 가나 병, 의원은 물론이고 약국이니 약포니 약방이니 하는 것들은 아예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곽란과 관격을 따주는 속칭 침쟁이를 만나 볼 수 있는 것만도 몇 동네에 한 사람 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근에서 혹 누가 고뿔(감기, 몸살)만 들고 체증(소화불량) 등 대수롭지 않은 병만 앓아누워도 찾아갈 곳이 없는 가족들은 우선 답답하니까 천주교 신자인 우리를 불러서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껴 요청해 오면 나와 나의 어머니 그리고 성 도마 회장님 등 세 사람은 의례히 한 조가 되어서 요즈음 119구급대가 오히려 무색하도록 기민한 행동을 취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부르기 쉬운 워리 개이었다. 그러나 3명의 기도조인 우리는 언제나 불러주는 것이 무한히 감사해서 득달같이 찾아가 기도를 드려주다 보니 자신과 자가의 일에 피해 내지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다고 말할 수야 없는 실정이었다.

그와 같이 전교를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원체 교리엔 역사도 전통도 없으니 마치 뿌리 없는 회초리만 모래 위에 꽂아 놓은듯하여 금방 뽑힐 수도 있고 고사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일 뿐이었다. 겨우 알고 있는

기도라면 천주경, 성모경, 영광경, 지금의 주의기도…성모송, 영광송밖에 없고 환자와 환자의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가 또 있다면 공과책 지금의 기도서에서 성수를 칠 때 바치는 기도를 낭송하면서 성수를 환자의 몸에서부터 방 그리고 이웃 방, 부엌 (지금의 주방)까지 건물 안은 물론이고 앞마당 뒷마당 등 담 안에는 흠뻑 젖도록 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 밖에까지 뿌려서 대개 한 가정을 방문하는데 소비되는 성수의 분량은 거의 한 되 정도 이어서 매 판공 때마다 성수를 몇 독씩은 이루시었고 당시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포리공소의 성수 사용량은 우리 본당 전체가 사용하는 성수의 양보다 오히려 많다고 하시며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시기도 하셨다. 그밖에 또 드릴 수 있는 기도라면 가정을 위한 기도와 병자를 위한 기도뿐 더 이상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야속하고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었으나 하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사고는 기도를 남보다 많이 알고 교리의 달관에 있지 아니 하고 하느님을 향하는 열의와 은혜를 구하는 정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하셨음인지 단조롭고 서투른 그리고 미흡하기 만한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어 기도만 해주고 돌아오면 환자가 깨끗이 낫았다는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미친 사람(정신질환자)들이 삼사명은 죽히 치료가 되기도 하였고 그 중의 한 친구는 수사 신부가 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시의 신비와 영험을 회고해보면 그때는 성령세미나 같은 특수기도도 없었는데 어찌하여 병이 그토록 잘 치유가 되었는지 의문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또 한 가지를 언급하자면 상가에 정성껏 연도를 드려주는 일이었다. 외인들이 오 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온 예절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경우에 따라 곡을 하는 것이 전부인데 비하여 우리는 연도(연령기도)를 바치는데 느릿느릿하고도 운율이 있어서 옛날 육전 소설을 읽는 소리 같기도 하고 판소리를 조를 나눠서 부르는 것 같기도 한 경문을 계와 응으로 나누어서 화음을 이루어 가는 품이 내가 들어도 들음직하기도 하였고 그 은근하고도 근엄한 음정이 마치 천국의 문을 두들기기라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인근에서 초상만나면 유학에 도취한 특별한 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상례보다 우월한 바가 있음을 사람과 사람, 입에서 입으로 한발 한발 전해진 소문은 양촌면에 장골마을과 별곡면에 한삼내 까지도 흘러가서 우리 공소의 연도 팀은 타면인 장골 한삼내로 초청 받아 연도를 드려주기도 하여 양촌면 장골의 경우 비록 우리 본당의 소속

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드러준 연도의 영향을 받아 전교된 교우들이 공소를 새로 세우기도 하였던 바가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전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진전되어서 하루가 다르고 한 달이 달라 일 년에 춘추로 두 번씩 돌아오는 판공 때마다 영세자가 수십 명씩 되는 바람에 옥내에서는 영세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곳은 날씨에도 반드시 밖으로 나와야만 영세식을 거행할 수가 있었을 때도 허다하였다.

#### 4. 강당 건축의 꿈과 열망

현재까지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근(연산, 상월, 노성면의 일부)이 천주교회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천주교 신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눈을 씻고 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야말로 불모지대 그 자체이었으나 한 사람, 두 사람 전교가 되기 시작하더니 외인들이 입교를 하는 것이야 그럴 수 있는 일이라 치더라도 이웃 감리교회 신자들이 대거 밀려드는 것은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강당이 위치한 곳에서 약 200여 미터 떨어진 지역에 현재도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백석 강당을 건축하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제법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교회였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전교에 혈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웃 교회의 신자를 파렴치까지 무릅쓰고 흘려낼 만한 사람도 못되고 사실상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를만한 교리 지식 또한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감리 교회 청년 신도들이 많이 개종을 해오는 것은 우리들의 전교 노력을 손톱만큼도 들이지 않은 결과이고 보면 이는 분명 하느님의 섭리로 돌려야 할 수확이었다.

그리하여 부활절 미사 후에 해마다 실시해 오던 본당의 각종 단체들과 관할구역 내의 각급 공소 교우들이 경기의 조를 편성하여 친선대항을 하는 운동회(체육대회)에서 언제나 맡아놓고 일등만을 하여 우승기를 독차지하였던 젊음과 열정이 충만하여 타에 부러움을 사기도 한 적이 있지 않았었는가?

당시 우리 공소 신자들을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또 남성들 가운데서도 젊고 패기만만한 청년들의 수가 월등히 많아서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 해도 힘으로 하여 가능한 일일 경우 한번 시작만 했다 하면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 없었으며 특별히 전교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시가 있었거나 권고한 바가 전혀 없었어도 그 성과는 엄선된 정예군의 착실히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결

과보다 오히려 적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와 같이 전교를 향한 교우들의 적극적이고도 활발한 활동과 무념무상의 열성적인 기도는 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인 병마로부터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였고 병고에서 치유되어 건강을 되찾은 환자의 경우 그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입교하는 것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가친척 이웃마을 사람들까지도 전교가 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연도(연령기도)도 전교에는 큰 몫을 해내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같은 효과를 발휘하여 신자 수가 날로 격증하다 보니 이젠 도저히 영세서민들의 구 한식주택 구조인 삼간전퇴 좁디좁은 공간에서는 더 이상 관공행사를 유치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소 교우 청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당 건축에 대하여 협의를 자꾸 하였으나 돈이 없는 무 예산 회의는 결국 매번 사상누각의 헛수고만을 연속할 뿐 아무런 대안이라곤 없었다. 당시만 해도 심산벽촌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뿐이었으므로 부수입이 될 만한 아무런 일거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과는 조건이 매우 달라서 일상의 생활을 초월한 일은 비록 미세한 것일지라도 언감생심이었다.

수리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시절에 농사지어 가족들의 연명구제도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먹고 살아가는 일밖에 다른 곳에는 투자할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다.

## 5. 강당부지 매입

아무리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봐도 속수무책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참으로 난처하기만 한 입장에서 본당 주임이신 성재덕 신부님께서 우리 공소의 처지를 읽으시기라도 하신 듯 강당 건축을 위한 부지를 잘 선정하여 본당으로 보고해 달라 시는 말씀이 계시었다.

물론 우리 공소의 청년들이 본당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던 바가 없지는 않았으나 당시 본당의 경제적인 형편을 감안해 볼 때 감히 기대하거나 바랄 수가 없었기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반대로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들의 그치거나 쉴 줄 모르는 열의를 꿰뚫어 보신 듯이 크게 힘들이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선뜻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본 우리 공소의 신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불타는 염원을 어여뻐 여기시어 들어주심이라 믿어 의심치 아니 하였었다.

신부님의 잘 선정할 것을 명하신 말씀의 뜻은 강당입지를 잘 골라서 모든 신자들의 통행에 편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야말로 호조건을 의미하시는 것이었다. 우리 신자들이야 기도를 하고 성가를 부르는 게 성스럽고 다정다감한 것이 사실이지만 비신자와 이교도는 혐오감을 가지기 마련일 것이고 또 아무리 성전의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신자들의 통행거리가 멀고 오르내림이 심하게 되면 장구한 골칫거리가 될 것을 염려하시어 하신 말씀이 틀림없었으리라. 사실인즉 신부님께서 강당 부지를 매수해 주시기 이전에 내가 우리 밭에다 강당을 건축하도록 터를 내어놓겠노라고 하였더니 성주문 도마 회장님께서도 역시 당신의 밭을 강당 건축 부지로 내어놓겠다고 하시어 서로 앞다투어서 내어놓겠다고 하는 바람에 부지 풍년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으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적지라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은 곳이었다. 두 곳 모두가 다 한편으로는 치우친 바가 있어서 신자들의 통행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었다.

신부님께서 의도하시는 적지라는 곳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통행거리가 아주 가까워서 나름대로 벽촌으로서는 중앙지로 인정되는 곳을 지칭하신 말씀인데 나나 성주문 도마 회장님께서도 같은 마을에 살았으며 또 예나 지금이나 몹시 궁핍한 곳임에 틀림이 없었기에 회사하겠다는 토지 또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나마 장점을 굳이 표출해 적지를 합법시한다면 교회는 높은 곳에 지어지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으니까 비록 자연적인 조건이었지만 산촌이라 높이 매달렸으니 교회를 건축해 놓았을 때 여러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일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때 회사를 반대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의 입장하는 바를 고찰해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기도 하였다. “성전을 어디 어제 지었다가 오늘 부수고 오늘 지었다가 내일 또 부셔도 되는 장난감입니까? 귀한 땅을 회사하시는 것이야 고맙기 이를 데가 없는 일이지만 아무리 회사하고 해도 최적지가 아닌데 회사하시는 고마움만을 생각하여 무조건 접수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친구는 남병희 부르나바 형제였다. 그 친구는 우리 백석 강당을 건축하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이어서 신부님께서 의도하시는 적지에 가장 가까운 터를 소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었고 결국 현재의 강당 부지를 소개하는데 성공하시기도 하였다.

당시 그 밭은 백석리 평촌부락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주택들과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하면 산자락의 뿌리 부분이어서 드문드문 분묘가 있기도 한 곳으로 교

회를 건립하기에 손색이 없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지적마저 270여 평으로서 자그맣고 아담하여 당시 강당 부지로서는 매우 적절한 면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 공소의 청년들은 그 말을 본당 신부님께 보고하기에 이르렀고 신부님께서는 이를 쾌히 승낙하시어 대금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다 사주신 것이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토지대금은 대개 백미 세 가마 정도가 아니었으나 하는 기억이다.

## 6. 꿈으로 그친 강당 건축

강당을 건축하려면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은 부지이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 부지가 마련된 우리 공소의 신도들은 하루 속히 강당을 지어야겠다는 일념만이 열화와 같이 타올랐으나 가진 것이 없는 형편인지라 진퇴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참으로 따분한 입장이었으나 그런 가운데에서 푼푼이 모아 두었던 몇 푼의 돈으로 우선 설계도에 따른 기초공사를 먼저 해두기로 하였다. 터의 위치가 미혈[迷血]이고 산의 뿌리여서 그런지 모래와 자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았으며 공사를 마친 다음의 성석도수[成石度數]가 양호하였는가 하면 표면에 드러난 모습 또한 매우 아름다웠다.

우리 공소에서 없는 가운데에서도 조금씩 돈을 모았던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 조건이 좋고 중앙 부위로서 매우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그 문제를 본당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은 기초공사를 하는데 다 써버렸으니 이제 아무 것도 남은 것이라곤 없는 형편이었다.

하는 수 없이 또 한동안을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돈이 없으면 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사의 성불성은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진 것이 전무할 때 마음만으로는 역시 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설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자는 시간에도 잠들지 아니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성전인 강당을 말끔히 지어놓고 풍성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각색의 연구를 하다못해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으니 무엇을 어찌하여 그리도 원하는 강당을 세워보기라도 할 것인가를 머리와 머리, 가슴과 가슴을 마주대어 논의를 거듭한 끝에 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

었다. 그것은 흙으로 벽돌을 찍어보지는 의견이었다. 흙벽돌이야 설사 돈이 없을지라도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자신감이었다. 우리 공소는 심산벽촌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신도들 역시 가진 것이 없을 뿐이지 일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적잖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노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흙벽돌을 찍어서 강당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이 집약된 것이다. 그리하여 농한기인 봄, 가을로 며칠씩 손을 모아서 흙벽돌을 많이 찍어 가지고 넓은 마당이나 냇가 모래밭에 널어놓아서 비들비들 물이 마를만하면 반갑지 않은 소나기가 느닷없이 마구 퍼부어 모두 깨져 버렸으니 이는 십 년 공부가로 아미타불의 형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태여 왜 십 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야 되느냐고 할지 모르는 일이지만 당시 우리 공소의 청년들의 생활형편은 가난하여 모두 남의 품이라도 팔아야만 가정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시간을 며칠씩이나 틈을 내어 손을 모으자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는 말로 설명하기가 몹시 어려운 실정이었기에 한 말이었다.

이 친구가 어쩌다 짬이 나면 저 친구가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고 또 어떤 친구는 농역이 거의 끝나서 시간을 내어 손을 모아 보자고 서두르는가 하면 어느 친구는 아직도 할 일이 겹겹이 쌓고 쌓여서 전혀 짬을 낼 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공소의 청년들이 그 일을 도와주어야만 되는 경우도 허다하였으니 그와 같이 일치가 쉽지 않은 참으로 어렵기만 한 시간을 간신히 할애하여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찍어놓은 벽돌들이 원치 않는 소나기에 모두 파괴되어 마치 개죽처럼 멀쩡게 흘러내려서 가을 같이 해놓은 논바닥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괴로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이 가능하단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공소 교우들의 칠전팔기에 굳건한 결의는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매년 한 번도 거름 없이 추진하여 왔으나 그때마다 온전히 그냥 두지를 앓았으니 이제는 흙벽돌을 찍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는 계획은 파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망에 실망만을 거듭해 오던 우리 공소 청년들은 절망의 피해심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느님의 무심하신 배려에 원망도 하고 또 우리들의 우매한 판단과 현명치 못한 작업추진을 한탄하기도 하면서 당분간 쉬며 다시 논의를 해 채택된 결의는 진일보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었다.

우리 공소는 산간오지에 위치해 있어 몹시 빈곤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당에서 현금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처럼 우리 공소에서도 주일 공소예절을 할 때마다 십시일 반 격으로 성심성의껏 헌금을 하듯이 매번 조금씩 잔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시멘트를 매입하여 벽돌을 찍기로 합의를 하였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자재대보다 인건비가 더 드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건축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도 벽돌을 찍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농한기를 이용해 또 벽돌을 찍는데 이번에는 흙 대신 모래가 많이 필요하기에 백석리와 사포리의 리 계를 이루고 흐르는 소하천의 사질이 좋고 널따란 모래 광장을 잘 다듬어 정성들여 찍어 놓았던바 이번에도 야속한 비는 비켜 가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보니 이번 손해는 노력뿐 아니라 시멘트 구입대금까지 함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으니 참으로 실망이 너무 큰 실정이었다. 이번의 실망이야말로 비단 나와 또 뜻을 같이 하고 힘을 있는 대로 쏟아 온 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 공소 신도들의 공동의 비관이라 할 수 있었다.

## 7. 하늘이 내리신 성전

7.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들은 그저 속수무책일 뿐 다른 묘안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부활대축일이었는데 열시 반 대미사 중 손만재 주임 신부님의 강론 말씀 가운데에서 내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대목이 있었는데 내용인즉 원조금에 관한 말씀이었다.

독일에서 이십 만원 그리고 이태리에서 또 이십 만원을 도합하여 모두 사십 만원의 원조금을 우리 논산 부창동본당으로 보내왔는데 원조해주신 마음이야 참으로 고맙지만 액수가 너무 적어서 본당의 용도에는 적합한 곳이 별로 없어서 은진공소에 이십 만원 그리고 연산공소에 또 이십 만원을 나누어주어서 공소의 낡은 부분을 수리하게 하던가 아니면 좁은 곳을 늘리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닌가?

신부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정신이 온통 현란해져서 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전례를 무슨 마음으로 어찌 보냈는지 그 짧고도 짧았던 그 리고 그토록 귀중한 시간이 여삼추라 할 수 있었다.

미사가 끝이 나자마자 나는 경기장에서 단거리 선수의 스타트 장면처럼 그 많고

도 많은 신자들이 단 한사람도 성당 밖을 나오기 전에 먼저 뛰쳐나와서 사제관의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까 신부님께서도 아직은 사제관에 돌아오시지 않으신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기다리기로 하였다. 신부님께서 집무실로 들어오실 때까지!

이윽고 신부님께서 몇 분의 신도들과 더불어 왈자지껄하게 무슨 말씀인가를 골똘히 나누시면서 집무실로 들어오시다가 신부님보다 오히려 내가 먼저 집무실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시자 내심 의아스러우신 표정을 지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일찌감치 사제관을 찾아왔느냐는 식으로 통명스럽게 물으시지 않겠는가? 나는 신부님의 물으심에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신부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공소의 경우 신자들은 날로 늘어만 가고 공소 집은 너무나도 협소하여 매 관공시마다 성사를 비롯한 제반 행사의 진행을 실내에서 하지 못하고 번번이 마당으로 나와야만 겨우 할 수가 있음을 신부님께서도 몸소 겪으시고 실지로 느끼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공소는 생각지도 않으시고 공소의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공소로서의 틀이 완전히 잡혔으며 따라서 신자 수에 적당한 수용을 고려하여 본당에서 그에 알맞은 공소 집을 마련해 주기까지 하여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공소에다 원조금을 주신다면 이는 대단히 불공평한 처우이시며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힘주어 안타까운 애걸복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님께서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표정으로 “미친놈, 시몬아! 너 아까 미사 때에 내가 원조금을 은진과 연산 공소에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더니 그 말 때문에 네가 기분이 그토록 나빴구나!” 하시면서 “그 돈 가지고는 절대로 강당을 지을 수가 없어!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오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같은 적은 금액을 가지고는 너희 강당부지 위에 기초 공사를 할 만한 예산도 될 수가 없음으로 새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아예 할 수가 없어서 다만 조그마한 기성 건물의 노후 된 부분을 수리하는 데나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신부님의 타이르시는 말씀에 한 치도 순명을 하려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신부님께 다시 말씀드리기를 “신부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우천 시에는 관공성사를 노천에서 비를 맞아가며 집행해야 하는 형편임을 신부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액면이 적다고 하여 기존 공소의 수리비로 사용하신 뒤에 다음에도 또 원조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실정이고 보면 어느 세월에도 넉넉한 예산을 적립하

여 버젓이 강당을 건축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신부님! 그 돈이 비록 적은 돈일지라도 저희 공소로 돌려주십시오. 액면만큼만 부분 건축이라도 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끈덕지게 마구 매달렸다. 그러나 신부님께서서는 한 번 발표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번복하려 들지를 않으시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신부님과 나와 의 사이에 적지 않은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우리 공소에는 나와 너무나도 절친하고 자별한 친구이자 교우인 남병희 바르바나 씨가 있었다. 그는 참으로 좋은 동지이면서도 각자의 뜻을 세우는 데는 용호 상박이라고나 할까 서로의 항쟁은 막상막하여서 타인들이 볼 때에는 적수[敵讐] 같이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내면적으로는 남다른 친절이 있었으며 매우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아[彼我]의 서로 통하는 면은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그 친구와 함께 협의를 하여 강당 건축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는데 나는 물론이고 바르바나 친구까지 집안일은 잊은 듯 아니 아예 없는 듯 관심 밖에 방치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분당엘 찾아다녀야만했다.

지금처럼 통신시설이 양호하고 교통수단이 편리한 시절이 아니었으므로 간단한 말 한마디와 짧은 서한만 전하려고 해도 그 떠나면 길을 도보로 걷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자전거를 타는 정도로 찾아가서 용무를 보아야만 하였으며 따라서 가고 오는 도로사정마저 좁고 꼬불꼬불한 비포장 오솔길이어서 걸어도 불편하고 막상 자전거를 탄다 해도 털털거리고 움푹 쳐 박히거나 옆으로 튀어나가서 차라리 자동차를 운전하기보다 오히려 더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비가 내리는 경우 땅이 질고 미끄러워서 도무지 발붙이기가 어려운데다가 구루마 바퀴자리 등 깊은 곳이면 어디든지 빗물이 가득가득히 차고 넘쳐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가야만 할 때도 여러 번 있었으니 이거야 원 내가 자전거를 타는 건지 반대로 자전거가 오히려 나를 타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꼴불견에다 빗물과 진흙이 온통 뒤범벅이 되어버린 한심한 꼴골은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견고하고 적극적인 의지는 멈추거나 후퇴할 줄을 모르는 상태로 죽히 반년 동안을 밀어붙이다 보니 손 신부님의 시종일관 굽히거나 꺾이지 않으시는 철통같은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크게 성공하였으며 급기야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시기에 이르시는 성과를 얻어내었다.

ㄴ. 손만재 신부님께서 우리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의지와 태도를 가늠하게 여기

시어 평소에 당신의 그 활달하시고 풍성하시면서도 때로는 철벽같은 데가 있기도 하신 그런 입장마저 접으시면서 까지 원조금 사십 만원을 다 우리 공소으로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나 어렵게 해주신 약속 못지않게 견고와 안전을 염려하시는 대비책에도 얼마나 완벽하게 단속을 하시는지 이 또한 만만히 여기지 못할 또 하나의 숙제이었다.

하루는 신부님께서 나를 성당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성당에 나가신 신자를 통해 전하셨기에 나는 깜짝 놀라서 그날 논산을 다녀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평소 같으면 아예 여장을 차리지 않았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밤에 귀가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출발을 하여 논산 성당에 도착하니 해가 서산에 걸려 있었다. 사제관에 들어가니까 신부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매우 단호하시고도 근엄하신 표정으로 하시는 말씀이 “애, 시몬아! 네 소원대로 원조금을 너희 공소(사포리)로 돌려줄 것이나 은진공소와 연산공소 교우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것을 회피할 수가 없으며 어떻게 사과를 하고 변명을 해야만 이해가 될 것인지 참 난감하구나! 그건 그렇고 이젠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너를 보자고 하였으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해줄 자신이 있는지 말해주어야겠다. 이 돈은 독일과 이태리에서 우리 본당을 위해 보내주신 원조금이기 때문에 나(손만재 신부님)는 본당 신부로서 이 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서 어떻게 쓰이며 쓰인 결과는 어떤 가치로 그 모습을 표출하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금이 오고 갈 때는 언제나 증빙을 남기는 것은 의례적인 통례인바 너와 나의 사이에서도 일반 사회에서 반드시 작성하는 법적인 요건을 구비해 두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식이니 그리 알고 결심해주기 바란다.” 라고 하시지 않겠는가!

듣고 보니 신부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꼭 필요한 대비책이시었다. 그리고 오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매우 훌륭하신 공금관리 방법이시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기분이 몹시 울적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나의 가정형편이 것처럼 액면이 큰 돈의 법적인 문건을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명쾌한 대답을 해드릴 만큼 여유로운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부님의 완강하시고 철저하신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하신 단호한 말씀에 내 어찌 머뭇거리거나 뒤로 미루어 말꼬리를 흐릴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다. 일

마나 오랜 기간을 권고하여 어렵사리 얻어낸 신부님의 허락이신데 우물쭈물 지체하다가 의혹을 야기하여 물거품을 만들 수가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뒷일을 심도 있게 고려할 마음에 여유와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어서 신부님의 요청하시는 바는 그 내용이 무엇이던 간에 다 따르겠노라고 부질없이 확답을 드리고 말았다. 그랬더니 신부님의 법적인 요구 조건은 대단히 강경하시었다. 원조금 사십 만원을 받아가거든 사십여 평의 강당 건축물을 미장과 내부시설 그리고 마루를 제외하고는 다 지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벽을 쌓아 지붕을 씌워서 비록 완공은 아닐지라도 우천에 비는 새지 않아 불편하지만 아쉬운 대로 판공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그게 어려워서 하지 못하겠다면 아예 설계 면적을 반으로 줄여서라도 내가 지시한 만큼은 해놓아야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해봐도 건평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그려보거나 스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았고 남 바르나바<sup>321</sup> 친구가 알면 나보다 몇 배나 더 충격을 입을 것을 생각하니 나 홀로 가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 신부님께 내일 다시 와서 결정된 바를 문서작성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아오는데 삼십 여리의 오솔길을 달도 없는 그믐밤에 내를 건너고 강통다리(소담수지 위를 지나가는 드림통의 위, 아래 뚜껑을 떼고 서로 연결하여 만든 농수로로 말하는 것임)위를 더듬더듬 걸어서 집에 도착하니 밤 열두 시가 훨씬 넘었다.

이튿날이었다. 나는 성 도마 회장님과 남 바르나바 친구를 내 집(공소)으로 오시라고 하여 협의를 해보았으나 어제 나의 예상했던 바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자인 벽을 쌓아 지붕을 덮는 일과 후자인 설계를 반으로 줄이는 일 중에 전자를 택하여 우선 건축을 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후일 힘을 더 길러서 마무리하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의견일치를 본 나는 남 바르나바 형제와 함께 또다시 논산 성당으로 내려가 신부님께서 바라시는 공적문건을 작성해드리는 자리에서 신부님은 원조금 수령에 관한 요령을 말씀하시는데 일차에 이십 만원을 수령하되 벽을 다 쌓아 놓은 다음에 하고 2차에 또 남은 이십 만원을 수령하되 지붕을 완전히 덮어 놓은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약역의 문건을 법정양식에 의해 작성하라는 것이 아닌가?

사세가 이리되고 보면 건축업자도 아닌 우리가 건축자재를 미리 구입하여 이미 계획된 사업을 완전히 마쳐야만 신부님께 원조금을 수령할 수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외상을 얻기도 해야 하고 돈을 차용하기도 해야만 하게 되었으니 그 소임이 막중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물품을 외상으로 얻어 쓰고 많은 돈을 꺾질 한다는 것은 말이야 쉽게 할 수가 있겠으나 사실인즉, 생각조차 하기가 어려웠었던 터이고 더군다나 그 분야에 전문가이거나 몸담아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 외상과 꺾질의 사정이 어찌 되었을지는 불문가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어이하랴! 당시 나의 입장에서는 신부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곧 하느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아왔기에 나의 능력이나 경제력이 불충분하여 신부님께서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신 조항을 실천하기가 어렵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리게 되면 혹 신부님의 기대에 못미쳐서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 염려되어서 신부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 알았습니다. 신부님의 말씀대로 모두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신부님께서 현재까지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하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직접 옮기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시었다.

계약 조건을 거의 다 말씀하신 신부님께서 책상 쪽으로 발길을 옮기시어 백지 두어 장을 꺼내 나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애, 시몬아, 내 책상에 앉아서 현재까지 너희와 내가 나누었던 계약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는데 만약에 계약을 준수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본인의 가산을 매각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을 실천할 것이며 그래도 이행이 불가능할 시는 법에 의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단서를 삽입하려고 까지 하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들은 나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신부님의 말씀에 따라 되도록 세밀하게 문건을 작성해드리고 돌아오면서부터 강당을 건축하는 공사가 개시된 것이다.

ㄷ. 그런데 강당을 건축해야 하는 시기와 농번기가 하필 쌍립이 되어서 만부득이 두 사업이 모두 낭패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따분하기 만한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하기를 강당을 건축하는 사업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이는 분명히 공적인 사업 일뿐 아니라 성전을 내 고장에 모시는 은총의 사업임에 비하여 농역이야 말로 개인적인 호구지책 일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임을 감안해 볼 때 이를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 농사 쪽을 포기하고 강당 건축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판단이 확실히 섰다.

가난을 면할 날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고지(논 한 마지기에 대하여 얼마의 금액이나 곡물을 정하여 이종할 때로부터 수확할 때까지 일을 맡아서 해 주기로 하고 미리 받아쓰는 현금이나 곡물)를 쓰고 선 품삯(며칠 후에 일을 해주는 조건에서 일 비로 먼저 받아쓰는 돈)을 얻어 쓰지 않

고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당시 나의 형편으로서는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나는 그해에 강당을 건축하게 될 기회가 주어질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기는 너무나 벅차서 나와 처지가 비슷한 친지들에게 나누어 쓰기까지 하였던 때이어서 설사 강당을 건축하는 작업이 아닐지라도 사실상 나의 농역을 내가 직접 해내기가 어려웠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집의 농사일이 되었건, 남에게 품일을 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되었던지 간에 모든 것을 일단은 아내와 친구에게 맡겨두고 나는 강당을 건축하는 일에만 온 몸을 다 바쳐서 종사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굳혔다.

이리하여 나의 농사는 완전히 남의 손으로 지어지고 남에게 갚아주어야 하는 고지와 품일은 다른 친구 내지는 다정한 친지에게 부탁하여 대신해서 갚아주도록 하거나 추수할 때 가산하여 갚아주겠노라고 하였더니 평소에 나를 믿고 나에게 일을 맡겨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고지와 선 품삯을 주었던 부농들에게 약속을 안 지킨 잘못에 대한 원망이 눈초리와 지탄의 욕설을 듣게 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 굳어졌으며 나 또한 송구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정도의 체면손상이나 사회적 지탄 같은 여건이나 조건에 구애를 받던가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하였다.

그런데 만고지탄이기는 하지만 수십 년이 경과한 오늘에 와서 가만히 회고해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이를 데가 없는 그야말로 후회스러운 처사이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삼십오 육년 전의 일이나 당시에 하더라도 의식주가 곧 생명 그 자체이었던 때였으니까 쉽지만은 아니한 일이긴 하였으나 신부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바쁜 농번기만은 조금이라도 비켜서 강당 건축을 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출하였더라면 신부님께서 설마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었을까? 어찌하여 신부님께 단 한마디의 건의 내지는 사정 말씀조차 못 드리고 신부님의 명령이라면 마치 군대식으로 무조건 일사불란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하기에만 여념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뇌를 스치곤 한다.

르. 드디어 내가 그토록 소원하던 바이며 우리 공소 신자들의 소원인 강당 건축 작업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작업실적의 배가이었다. 신부님과 의 계약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진척과 사업량을 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버젓이 업자들에게 도급하여 편안히 지어가지고서야 절대로 그 의도하는 바가 성사되기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축의 모든 일을 우리 공소 교우 청년들이 분야별로 맡

아 직영하고 첨단 기술이 필요한 목공이나 토공만을 개별적으로 사용해서 건축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해야만 하겠다는 것이 당시 나와 공소 신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우리 공소 신자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총력단결하여 강당 건축에 심혈을 경주하였으며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나를 비롯한 몇 친구가 업무를 분담하기로 결의한 다음 우선 나는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의 구매와 목공이나 토공 등 전문 기술인을 뽑아서 데리고 오는 일을 맡아하기로 하였으며 남병희 바르바나 친구는 타계한지 오래되어서 지금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친구이긴 하지만 당시 본성 선량한데다 신망정신이 남달리 투철한 최태만 형제와 함께 작업을 지시하고 감시하여 설계도의 취지와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못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여 총력을 집중하다 보니 때로는 삼복염천의 불별더위와 주장야단하고 작업에 찌들어 피곤한 육칠월에도 야간작업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도 허다하였다.

예를 들면 기초 공사가 되어 있는 안팎의 고르지 못한 흙이며 잡쓰레기 등을 밖으로 파내거나 돌고 또 높은 곳을 낮추며 낮은 곳을 채운다든가 벽돌을 쌓는 곳 가까이로 적당히 옮기고 또한 흔치도 않은 자갈과 모래를 구하기 위하여 백석천으로 나아가 여기저기를 누비고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주워 모으고 열계미로 쳐서 돌은 돌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구분하여 쇠 구루마에 실어다가 현장에 푸는 일등 잡다한 것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건축을 보좌하는 일들은 많았었다.

지금과 같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다방면으로 밝아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다지 큰 건축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부분 공사까지만 완공시키는 데에 걸리는 기간도 무려 두어 달이 더 걸린 셈이었다. 나와 남 바르바나 친구를 비롯한 권태만 형제와 우리 공소의 성주문 도마 회장님 그리고 공소 신자들 모두의 끈질긴 노력으로 이룬 그야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성과였다.

당초에 본당 신부님께서 크게 염려하신 나머지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셨던 내용대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모두 마친 다음에 계약조항에는 하등의 관계도 없었던 텐조(천반)를 하였으며 비록 시멘트로나마 바닥 콘크리트를 마치고 비닐 자리를 깔았다. 뿐만 아니라 벽의 내, 외부 미장공사까지 완료하여 사실상 백석 강당 건축사업은 마감할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일반적인 성과로만 보아 넘길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같은 공정을 이루기까지는 본당 신부님께서 돌려주신 사십 만원의 원조금만으로써는 열토당토아니한 태부족이었으나 우리 공소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강당 건

축 예축금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을지라도 통 털어서 보탠 것과 강당 건축에 소  
용된 일체의 인건비 및 물품 운반비를 우리 공소 신자들의 재량과 부담으로 처리한  
결과였다.<sup>322</sup>

이리하여 신부님과 문서 체결하였던 계약 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 드리는 실적심  
사와 기록감사를 받아 OK와 칭찬을 아울러 들은 다음 계약 문건을 되찾아 폐기하는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ㄹ. 그러나 미진한 부분이 어찌 없다고 하겠는가? 건축사업과 관계되는 일은 아  
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으며 벽지였기 때문  
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왔던 것도 벽촌만이  
겪어야 하는 아픔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인지 연도를 기억할 수가 없지마는 그 지역에 전기를 끌어오는  
사업을 맡아 추진 중에 계신 한대우 씨로부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께서 현재 추진  
하시는 사업은 분명히 성사될 것이며 만약에 당신의 말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개인들  
의 가정에까지 전기를 설치하여 광명을 누릴 수 있게 될 터인데 유독 백석 천주교회  
만은 주인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설치비용을 납부해주는  
사람도 없고 당신 또한 누구를 특별히 지칭하여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줄 만한 신도  
도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객지로 주거를 옮긴 영호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말  
씀이셨다.

한대우 씨의 말씀의 듣고 보니 내가 비록 객지로 나와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  
만 그 강당이 어떻게 지어진 집이며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전기였는데 온 마을이  
다 전기의 혜택을 입어 광명을 누리고 있을 때 명색이 교회로 대중이 집결하는 공청  
에서 전기가 없어 사가에서도 마음대로 누리는 문화의 혜택을 입을 수가 없다면 이거  
야말로 주와 객이 전도되는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한 대우 씨에게 말씀드리기를 “형님, 형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  
극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가진 것이 없어 공사비용을 직접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강당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의 액금만 알려주신다면 조만간  
제가 비용분담금을 마련하여 납부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부지런히 준비하  
여 납부해드렸고 전기는 그리 오래지 않은 기간 내에 설치되었다. 나는 참으로 기쁘  
고 즐거웠다. 거창하게 창세와 건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강당을 신축하고 한동

안까지도 석유등잔 신세를 면할 수 없었던 그 벽지에도 전기가 들어왔으니 이야말로 광명천지를 맞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ㅂ.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강당 신자들의 해묵은 숙제, 사제관 겸 다용도실 건축이었으나 역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이었다. 가진 것이 넉넉지 못한 벽지의 교우들이므로 한시가 급한 사업이긴 하지만 쉽사리 건축을 결행하지 못하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걱정들만 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는 나의 생계만 유지해 가기에 힘도 들고 가정의 궁핍을 벗어나기가 몹시 어려워서 객지로 이주하여 월세 사글세를 전전하며 막막한 생계를 꾸려가느라 누구보다도 애를 태우면서 살아가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백석 강당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한 치도 변한 것이 없어서 앓으나 서나 그곳 연산에 있건 이곳 대전에 있건 항상 불변색 그 자체였다.

어느 때인지 하루는 백석 강당에서 공소예절을 하는 날이었다. 공소 신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사제관 및 다용도실 건축에 관한 걱정들만을 하고 있을 뿐 어느 한구석도 시원스러운 면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내 가정의 궁핍 같은 것은 고려하거나 돌아볼 여유도 없이 불쑥 말하기를 “어차피 더 이상은 미루거나 피해가서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한없이 유보하거나 망설이기만 하는 것만이 상책일 수는 없으니 만큼 더 이상은 연기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집을 지을 때 가장 많이 드는 것은 지붕을 덮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 지붕감(스레트)은 제가 책임을 지고 마련해보겠습니다. 벽을 쌓는 일이야 신자들의 손을 모으기가 몹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노력만 들여서 흙으로 벽돌을 찍어쌓기만 하면 경제적인 부담 같은 것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문과 문틀만 기성품으로 준비하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할 수야 없겠지만 그런 대로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공소 신자 여러분들께서 비록 준비가 미흡하여 엄두가 나지 않아 결행을 하지 못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워져 자가를 꾸리기도 몹시 힘든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내가 겁도 없이 그토록 많은 부담을 자청하는 것을 보시고는 용기를 얻으시어 착공하실 것을 결의하시었다.

당시 나의 처지를 잠시 회고해 보면 꿈에라도 다시 재연될까 두려운 일이었다. 시대적으로 미루어볼 때 국가의 빈곤이며 국민의 궁색이었으므로 나와 나를 따로 구분지어 말할 일이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중에 나의 생활형편은 너무나도 궁핍하여 농촌에 살면서 소유의 농지가 거의 없는 사람으로서 그대로 농역만을 직업삼아 살아가

기에는 도저히 가게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 단 한마디 말인들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입장에서 백수공권으로 대전으로 올라와서 열 달 사글세가 15,000원이었으니까 한 달 월세는 1500원짜리이며 하룻밤 숙박비로 계산하면 50원에 불과한 방이었으니 대한민국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최하의 셋방을 얻어 살아가다 보니 공동변소(지금의 공중화장실)에서 불과 일 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말하자면 화장실 옆방이었으니까 지린내(악취)는 말로 어찌 표현이 가능하다 하겠는가? 그나마 천장은 강통을 펴서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지고 합석 대용품으로 사용되던 것으로 덮어놓았던 것이 내구 연한을 너무 많이 넘겨서 모두 부식되어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바삭바삭 부서져서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워서 올려다보면 하늘이 시퍼렇게 보이고 별이 반짝이는가 하면 만약에 비가 내릴 경우에는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에 물받이 그릇(세면기며 양재기) 등을 뺐뺐이 늘어놓고 물이 가득히 차오르는 대로 번갈아서 밖에다 비워버리지 않으면 방이 아니라 온통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였기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곤궁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전능, 전지, 전선하심에 한치의 의문이나 불신을 품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염치가 없음을 솔직히 자인하면서도 철없이 아내 안나에게 내가 백석 강당에 약속한 스텐트 구입비를 변통해 줄 것을 막무가내로 요구하였지만 아내 안나는 구교의 딸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고맙게도 한 마디의 불평불만도 없이 사방팔방으로 돈을 대서 정성껏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스텐트는 물론이고 문과 문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구매하는데 조그마한 차질이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생활은 온통 빚더미 위에 걸터앉아있는 따분한 신세를 면할 길이 없어 하루하루가 그저 막연할 따름이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부부의 항주애에 대한 보답을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해주셨음을 즉시 보여주셨기에 나는 수십 년이 경과된 오늘까지도 차마 하느님의 그 고마우신 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별스럽지 않은 일에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깃들어서 모든 일들이 평소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호전되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채무변제를 빨리 할 수가 있었으니 누가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서는 하느님의 기적임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토록 오랜 세월을 마음속으로만 지었다 부셨다를 연속하고 크게 지

어보기도 하고 작게 지어보기도 하여 환상이 아니면 꿈으로 여겨왔던 백석 강당을 비록 불비하고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렵사리 건축하여 아쉬운 대로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은 이루었고 신자는 날로 늘어서 새로 지은 강당이 오히려 넉넉지 못함을 느끼는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 기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실정이었다.

ㅅ. 또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한다면 현재의 강당 서편으로 제대 뒤 모서리 끝 부분에 제의실과 고백성사 실을 짓도록 기본 설계에는 그려져 있었으나 경제 문제로 미처 다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근본 설계대로 완공해야겠다는 공소 신자들의 뜻이 결집되었다는 소식을 접해들은 나는 어떤 공정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아본 결과 역시 자재대금만 있으면 어려운 공역이 아님으로 교우들의 역량만으로도 능히 해낼 수가 있다고 하여 자재 대를 보내드림으로써 설계에 따른 백석 강당을 완공한 바가 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신앙의 씨앗이 뿌려진 지는 무려 반세기가 되었고 강당이 건축된 지는 1967년이거나 그때쯤이니까 삼십 오륙년이나 되었어도 나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서 그곳 미사에 될 수 있는 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제대 보를 갈아 씌운다든가 꽃을 꽂고 매일미사 책을 보내 드리는 등 단 한시도 그곳 백석 강당을 마음속에서 멀리하였거나 잊어본 적이 없었음을 첨언해두고 싶은 것이다.

ㅇ. 그 후 세월의 급속한 흐름과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산업발전과 불꽃같이 치솟는 경제성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시대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과 어업 등은 설 곳을 잃어서 농어촌의 젊은이들이 모두 도시로 진출한 것이 차츰 열기를 더하기 시작하여 70년대 중반에 이르자 거의가 다 시골을 떠나다시피 하는 바람에 현재는 거동이 부자연스럽거나 연만하신 노약자들만 몇 분이 남아 강당을 보존관리하시는 형편이니 어찌 한심한 마음이 들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모두 객지로 나아가 백석 강당에 소속된 신자가 비록 아닐지라도 그곳을 신앙의 모태로 한 신자들 중에서 성직과 수도직을 가진 분들이 배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전능, 전지하심과 성모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소치가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자식이 성직이나 수도직에 직접 진출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이

지만 외형적으로나 내면상으로 변변치도 못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사포리공소로 승격되었고 공소가 다시 백석 강당으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이곳 신자들 중에서 그 진귀한 성직까지 배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며 영원무궁토록 잊지 못할 즐거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비옥한 땅에 파종됨으로써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한사람으로 인하여 파급된 복음의 씨앗이 이만큼이나 왕성하게 자랐으니 이 여세를 토대로 더욱더 많이 전파되어서 현재는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백석 강당으로 전락된 형편이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화려한 복음의 꽃이 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하는 바를 하느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굳게 믿으며 뿌듯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본다.

끝으로 반드시 추가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에 관하여 사과를 드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나를 위시로 약사를 작성한 것은 그 지역의 신앙에 발상경위를 밝히고 복음의 파급 정도를 될 수 있는 한 상세히 기술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 한 것뿐이지 강당을 건축하는데 참으로 많은 공을 세우신 분들은 나보다도 백석 강당의 교우들이셨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특별히 남 바르나바 형제와 현재 타계하여 하느님 품에 고이 잠드신 지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살아 숨 쉬는 권태만 형제는 향후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까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참으로 고마운 교우이자 친구였다.

세례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 교우이면서도 본인들의 생업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제백사하면서 강당 건축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그야말로 착하고 아름다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본인들의 생업에 언제나 피해를 받으면서도 강당은 필연코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초지일관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셨던 회장님을 비롯한 강당의 남녀교우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실 것을 기구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 8. 부록

이 약사는 작성해야 하는 기간이 50년이나 되니까 무려 반세기의 지나간 세월을 결코 짧다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며 그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무슨 수로 낱알이 기억할 수 있다 하겠는가?

따라서 있었던 일이며 생각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연대는 물론이고 앞에 있

있던 내용인지 뒤에 전개된 사실인지를 어떻게 분명히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하겠는가? 앞에 기술된 내용을 고찰해보면 미흡하기 이를 데가 없겠으나 나의 용렬한 두뇌로서는 될 수 있는 한 단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며 그래도 미처 기억할 수가 없어 누락된 것은 많을지라도 없는 일을 보냈거나 작은 일을 과장함이 절대로 없었음을 명기하면서 아쉬움을 누르며 이만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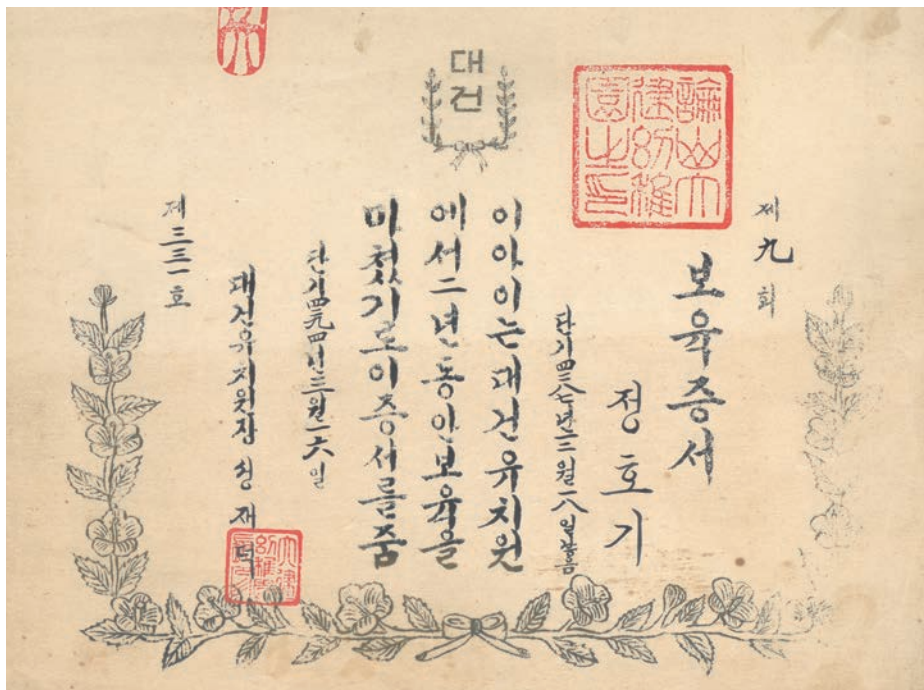
2001년 11월 11일

하영호 시몬 찬서 撰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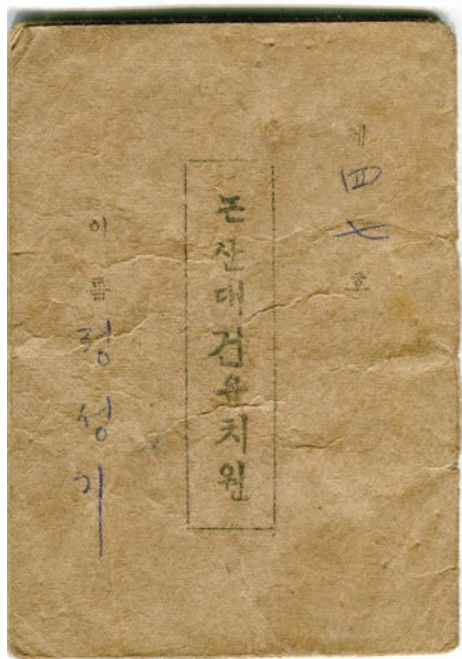
## 2. 논산 대건유치원 관련자료

이 자료들은 당시 논산 대건유치원과 관련된 것이다. 정호기(마티아)가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로, 2020년 8월 6일에 내포교회사연구소로 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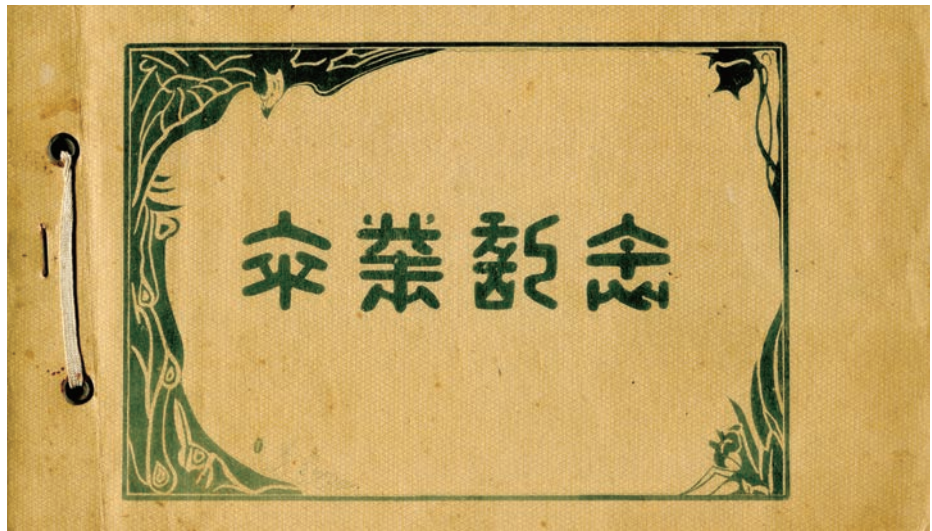
—  
논산대건  
유치원  
보육증서  
(1961년)



—  
1950년대  
논산  
대건유치원  
수첩



—  
제3회  
논산대건  
유치원  
졸업기념  
사진첩  
(1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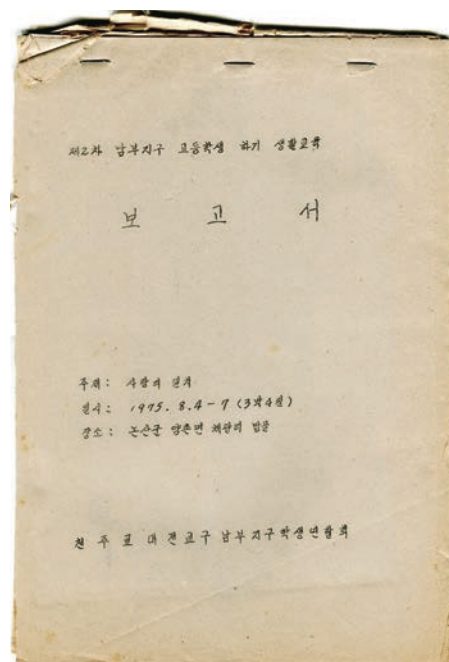


### 3.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 보고서」(1975)

이 자료는 1975년 8월 4일 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남부지구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논산군 양촌면 채광리 밤골에서 진행했던 ‘제2차 남부지구 고등학생 하기 생활교육’에 관한 보고서이다. 내용은 황민성 주교의 강론 말씀을 시작으로 유봉운(부여본당 주임), 박종우(연무본당 주임) 신부의 감상문, 개요, 조직표, 참가자현황, 교육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행사에는 지도자 13명(지도신부 2명, 지도교사 11명)이 참여하였고, 논산, 강경, 연무, 부여, 홍산, 신탄진 등 남부지구 소속 고등학생 1, 2학년 86명이 참여했다. 논산본당 주임이었던 김영곤 신부가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논산본당 지도신부 1명, 지도교사 7명(대건고 5명, 쉐벨여고 2명)이 참가하였다. 학생들의 경우 86명 중에서 32명의 논산본당 소속 학생들이었고, 세부적으로 고1 13명(남:6명, 여:7명), 고2 19명(남:5명, 여:14명)이 참여하였다.

이 자료에서 당시 참여했던 지도자와 학생들 대부분이 논산지역이라는 점을 봤을 때, 논산지역에서 학생연합회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4. 1970년대 주일학교 관련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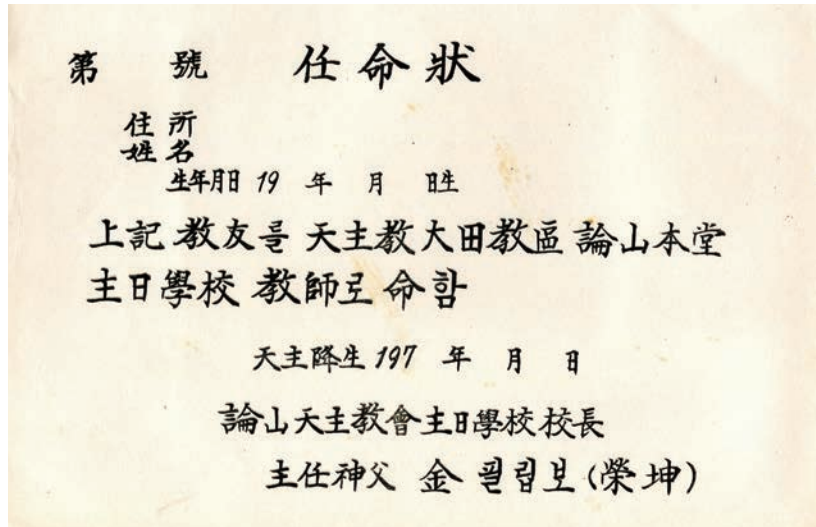
이 자료들은 1970년대 본당에서 발행한 주일학교와 관련된 것이다.

어린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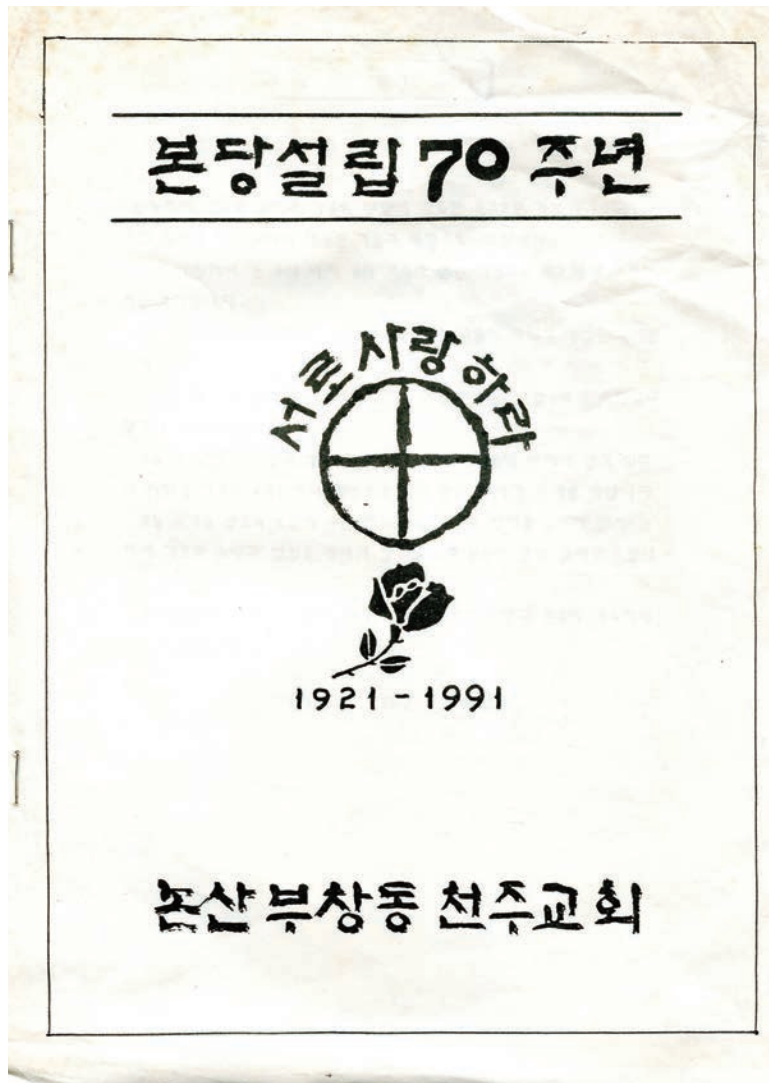
매일미사  
출석카드

<p>"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이터 지켜로 갈수 없습니다" (요한14장6절)</p> <p style="text-align: center;"><b>주 의 사 항</b></p> <p>1. 이 카드는 매일 미사 출석의 증명 이니 분실하지 마십시오.</p> <p>2. 미사에 나오실때에는 반드시 이 카드를 지참 하십시오.</p>	<p style="text-align: center;"><u>매일미사출석카드</u></p> <p>주 소 _____</p> <p>계 _____ 학년 _____</p> <p>성 모 비 _____ (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논산 천주 교회 주일학교</p>
--	---



## 5. 「본당 설립 70주년」 안내문(1991)

이 자료는 본당 설립 70주년인 1991년 10월에 만들어졌다. 총 8페이지(표지 제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플러로 제본하였다. 내용은 총회장 이은창(마태오)의 대회사와 본당주임 이종대(요셉) 신부의 격려사, 본당 후보인 루르드의 성모님에 관한 소개, 본당 연혁, 본당 설립 70주년 기념행사 일정표, 70주년 기념 행사 나눔표, 행사장 배치도, 교우들의 상점에 대한 광고순서로 구성되어있다.



## 6. 본당 90주년 자료

이 자료들은 본당 설립 90주년인 2011년에 발행된 것이다. 당시 행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90주년 기념미사

—  
90주년  
기념미사  
초대장

	<p style="text-align: center;"><b>논산부창동성당 설립 90주년 기념미사</b> Nonsan Buchangdong Catholic Church</p> <p style="text-align: center;"><b>초대의 말씀</b></p> <p style="text-align: center;">1921년 첫 걸음을 내디딘 논산부창동 천주교회가 올해로 본당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 성직자, 수도자,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감사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함께 기쁨과 은총의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1년 10월 논산부창동성당 주임신부 <b>성명필</b> 아그로 사목회장 <b>김동서</b> 요</p> <p style="text-align: center;"><b>전야제 및 기념 미사</b></p> <p>※일 시 : 2011년 11월 20일(그리스도왕 대축일) ※장 소 : 논산부창동성당 1부. 축회미사 : 15:00 2부. 축회연 : 17:00 ▶ 전야음악회 : 간타빌레 첼비오케스트라 및 성악가 초청공연(토요일 20시) ※주 최 : 천주교논산부창동성당 (문의전화 041 733-5321) ※후 원 : 천주교 대전교구, 논산시청, 논산문화원</p>
---	--

—  
90주년  
기념미사  
우편엽서



우편엽서

**찬미예수님!!**

● 1921년 첫 걸음을 내디딘 논산부창동 천주교회가 올해로 본당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홍식 라자로 주교님, 성직자, 수도자,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감사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함께 기쁨과 은총의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아래 참석란에 확인해 주시면 기념 미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석	불참석

보내는 사람 \_\_\_\_\_

받는 사람 **천주교논산부창동성당**  
충남 논산시 부창동 1번지  
T. 041 733-5321

3 2 0 - 0 8 0



—  
사랑나눔  
바자회 행운권

**논산부창동성당**  
본당성당90주년기념  
**바자회**

▶ 일시 : 2011. 4. 30(토) ~ 5. 1(일) 10시 ~ 21시  
장소 : 논산부창동 성당

본당성당90주년기념 바자회

기간 : 2011. 04. 30(토) ~ 05. 01(일)  
장소 : 논산부창동성당  
주최 : 본당부수, 본당운영  
후원 : 본당부수, 본당운영, 본당회원

**₩ 10,000 원**

논산부창동성당

---

행운권번호

번호:

( )

· 발행일시 : 2011. 05. 01(일)  
· 장 소 : 논산부창동성당  
· 1층 LED TV  
· 2층 최신 노트북 컴퓨터  
· 3층 아이브로드 디지털카메라  
· 4층 20층 푸짐한 경품 많이 있음

논산부창동성당

**행운권번호**

- 당첨된 경품은 연락적으로 배송해드립니다 -

· 추정일시 : 2011. 5. 1(일) 오후 4~6시  
· 장 소 : 논산부창동성당  
1층 LED TV(40인치)  
2층 최신 노트북 컴퓨터  
3층 아이브로드 디지털카메라  
4층 20층 푸짐한 경품 많이 있음.

**논산부창동성당**